

Presented by 기업 분석 1조

LS일렉트릭

2026

REPORT LS일렉트릭 ■

The logo for LS ELECTRIC, featuring the letters 'LS' in a large, bold, blue font with a red arrow pointing upwards and to the right from the top of the 'S'. To the right of 'LS', the word 'ELECTRIC' is written in a smaller, blue, sans-serif font.

목차

CONTENTS

01

산업 분석

02

기업 분석

03

투자포인트

04

리스크

LS  **ELECTRIC**

01 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1) 산업 개요

LS일렉트릭 기업의 핵심 사업인 전력기기 산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압을 조절, 사고 시 전류를 차단, 전력을 배분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이는 전력망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국가 기간 산업이자 장치 산업의 성격을 띕니다.

또한 단순 기계 제조를 넘어 AI,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전기가 구동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LS일렉트릭의 사업 구조에서 전력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연결 매출 1조 3,766억원 중 전력 사업의 폭발적 성장이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초고압 변압기 매출은 전년 대비 83% 급증하며 질적 성장을 입증했습니다. 기존의 저압과 배전 중심에서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인프라 시스템으로 매출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산업 전망

현재 전력기기 산업은 전 세계적인 인프라 재편에 따라 장기 호황기에 진입했습니다.

글로벌 전력 변압기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305억 4,800만 달러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5.65%로 예상됩니다. 2030년에는 약 402억 1,000만 달러(한화 약 55조 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LS일렉트릭은 2026년 1분기에만 1조 3,7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모량 급증에 따른 직류(DC) 솔루션 도입과 노후 송배전망의 교체 수요가 향후 10년 이상의 확실한 일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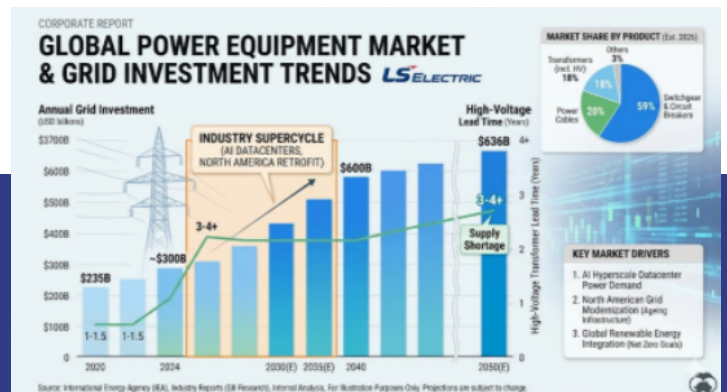
LS일렉트릭의 2026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 5.6조 원으로 없어서 못파는 구조를 형성시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제품 사진



초고압 변압기

글로벌 전력기기 산업 성장률 추이



전력기기 산업 성장률

01 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3) 시장동향 및 시장구조

최근 시장의 특징은 송전(발전소→변전소)을 넘어 배전(변전소→수요처) 시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LS일렉트릭은 바로 이 배전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센터와 공장 증설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기기에 ICT 기술(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전력 솔루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력기기 시장은 기술 장벽과 현지 공급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과점적 구조를 보입니다.

LS일렉트릭은 국내 저압/중압 전력기기 및 배전반 시장에서 약 60~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기업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설비 투자 및 국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의 점유율로는 LS일렉트릭의 북미 매출은 2026년 1분기에만 전년 대비 80% 급증했습니다. 기존에는 지멘스나 ABB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장악했으나, 최근 한국 기업들의 단납기 대응 능력과 품질이 인정받으며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LS일렉트릭은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내수 중심 기업에서 글로벌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4) 향후 성장 가능성 및 2030 비전

시장에서는 현재의 수주 물량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향후 2~3년이 LS일렉트릭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주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및 청주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특히 북미 현지 배전기기 생산 거점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7~2028년경에는 북미 시장 점유율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전망입니다.

또한 2026년 5월 현재, AI 산업 확대에 의한 데이터센터용 전력 설비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어, 단납기 제품인 배전반과 변압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LS일렉트릭의 수익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와 언론에서는 LS일렉트릭이 2026년 연간 매출 6조 원, 영업이익의 5,000억 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시장 점유율



국내 점유율 및 주요 고객사

LS일렉트릭 경영 실적

전사손익	단위: 억 원, %			YoY	QoQ
	'25 1Q	'25 4Q	'26 1Q		
매출	10,321	15,244	13,766	33.4%	△0.7%
영업이익 (%)	8.73	1,297	1,266	45.0%	△2.4%
	8.5%	8.5%	9.2%	0.7%p	0.7%p
EBITDA	989	1,434	1,388	40.4%	△3.2%
세전이익	835	1,309	1,543	84.8%	17.8%
당기순이익	674	838	1,196	77.6%	42.8%

최근 3분기 실적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1) 기업 개요

LS일렉트릭(LS ELECTRIC)은 전력망(송배전) 기기 및 산업 자동화 솔루션 분야를 영위하는 국내 1위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 1974년 금성산전으로 설립되어 1995년 LG산전을 거쳐, 2003년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2005년 LS산전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독자적인 그룹 체제로 출범했다. 이후 2020년, 글로벌 사업 확대와 스마트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현재의 사명인 LS일렉트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용가까지 공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전력기기(배전반, 차단기, 개폐기 등)와 공장 자동화를 위한 제어기기(PLC, 인버터 등)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최근 글로벌 노후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맞물려,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 트렌드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재평가 받고 있다.

2) 주요 제품 및 매출 구성

LS일렉트릭의 사업 부문은 크게 전력 기기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전력 부문", 스마트 팩토리와 산업용 제어기기를 담당하는 '자동화 부문', 그리고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을 생산하는 자회사 중심의 "금속 부문(LS메탈)"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연결 기준 전력 부문은 전체 매출의 75% 이상과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력 부문"은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인 전력기기 사업과 고성장 동력인 전력인프라 사업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내는 구조입니다. 전력기기 사업은 국내 저압 및 중압 배전기기 시장에서 60% 안팎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며 탄탄한 기초 체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력인프라 사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붐과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 및 신재생 에너지 연계 수요가 맞물린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면 자동화 부문과 금속 부문은 전방 산업의 경기 변동을 방어하며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부문"은 PLC와 인버터 등 공장 자동화의 두뇌 역할을 하는 기기를 다루며,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세계 동대공장"으로 선정될 만큼 독보적인 스마트 팩토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LS메탈이 이끄는 "금속 부문"은 LNG 선박, 석유화학 플랜트, 대형 건축물에 필수적인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을 공급하며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에 발맞춰 견조한 실적을 보태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역사



LS일렉트릭 사업 구조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2) 주요 제품

1. 전력 부문 (매출 비중: 약 70~75%)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수송가까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기와 시스템을 아우른다. 동사의 핵심 수익원이자 실적 성장의 주역이다. 과거에는 중저압 배전 기기 중심이었으나, 최근 폭발적인 AI 산업 성장이 촉발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트렌드에 힘입어 고수익성 초고압 변압기 및 배전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력 소모가 극심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겨냥한 북미 인프라 수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며 전사 이익률 개선을 이끌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초고압 변압기, 배전반, 전력용 차단기, 개폐기 등 송·배전 인프라 핵심 기기들이 있다.

초고압 변압기

발전소에서 생성된 초고압 전력을 송전에 적합한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북미 중심의 전력망 투자 확대와 AI 데이터센터 증설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겪고 있다. 대규모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확충했으며, 고마진 수주를 바탕으로 전사 수익성 개선을 주도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배전반

전력을 각 사용처에 맞게 분배하고 사고 시 전류를 차단해 계통을 보호하는 전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전력 소모가 극심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설비로, 특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직류(DC) 배전 솔루션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북미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LS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LS일렉트릭 배전반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2) 주요 제품

2. 자동화 부문 (매출 비중: 약 10~15%)

산업 현장의 기계 제어 및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과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지위를 바탕으로 견고한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며, 최근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장 자동화 트렌드로 중장기적 수요 기반이 탄탄합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 증설 시 전력 인프라와 자동화 설비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패키지 수주를 통해 사업 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인버터

산업용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정밀 제어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 20% 이상 최적화하는 장치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와 비용 절감 요구 속에 필수 기기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 1위의 점유율로 실적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PLC

생산 라인을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 제어하는 산업용 컴퓨터입니다. 과거 일본계 기업이 장악하던 시장에서 독보적인 국산화를 이뤄내어 수익성이 우수하며, 작업자 모니터링 화면인 HMI(산업용 터치스크린 화면) 등과 패키지로 결합해 고부가가치 솔루션 중심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인버터



LS일렉트릭 PLC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2) 주요 제품

3. 금속 및 기타 자회사 부문 (매출 비중: 약 10~15%)

자회사 LS메탈을 중심으로 산업용 배관 자재 등을 생산하며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매출을 더하고 있다. 또한, 본사 차원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매출 역시 탄소중립 기조와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주요 제품으로는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자회사 LS메탈), 스마트 에너지 사업(태양광, ESS) 등이 있다.

동관 및 금속관(LS메탈)

가전 및 산업용 배관에 사용되는 기초 소재를 공급한다. 전방 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으로 책임지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수행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인 간헐성을 보완한다.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수주가 급증하며 전력 인프라 사업과의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차세대 핵심 동력으로 안착하고 있다.

LS메탈 동관 및 금속관



LS일렉트릭 PLC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3) 사업별 매출 비중 및 주요제품 매출 현황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4) 실적 추이 및 재무 현황



■ 요약손익계산서(연결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제52기	제51기	제50기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1. 매출액	4,565,799	4,551,837	4,230,483
2. 매출총이익	1,051,373	907,591	773,434
3. 영업이익(손실)	426,407	389,717	324,878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	410,070	279,367	264,096
5. 당기순이익	284,257	242,238	207,673

■ 재무지표(최근 산업연도)

단위: 백만원

구분	공식구성	비율(%)	비고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본총계	12%	수익성(ROE)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25%	성장성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117%	안전성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5) 경쟁사 분석

주요 경쟁사별 상세 분석

국내 주요 경쟁사

1. HD현대일렉트릭 (초고압 변압기 특화)

국내 전력기기 3사 중 체급이 가장 크며, 현재 시장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초고압 변압기'의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북미와 중동이라는 양대 핵심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 잔고를 쌓아 올리고 있다. LS일렉트릭이 저/중압 기기를 기반으로 초고압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라면, HD현대일렉트릭은 전통적으로 초고압 인프라에 특화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2. 효성중공업 (다각화 및 현지화 강점)

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에 강점을 지니며, 미국(멤피스)에 선제적으로 생산 거점을 확보해 북미 시장 현지 대응력이 뛰어나다. ESS(에너지저장장치), STATCOM(정지형 무효전력 보상장치) 등 신재생 에너지 연계 설비 부문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단, 전체 매출에서 건설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순수 전력기기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에서는 종종 디스카운트를 받기도 한다.

| HD 현대일렉트릭



| 효성중공업

HYOSUNG HEAVY INDUSTRIES

02 기업 분석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5) 경쟁사 분석

주요 경쟁사별 상세 분석

해외 주요 경쟁사

1. Schneider Electric

LS일렉트릭의 전통적 캐시카우인 '전력 솔루션(저·중압 기기)' 및 '자동화'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1위 기업이다. 단순히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체 전력 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EcoStruxure)을 연계하여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Lock-in) 전략에 매우 능하다. 특히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용 무정전 전원장치(UPS)와 배전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 Siemens

초고압 송전부터 저압 배전,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제조업의 거인이다. 특히 LS일렉트릭의 자동화 부문(PLC, 인버터 등)이 글로벌 진출 시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 공장 자동화 제어(PLC)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사한 지멘스에너지를 통해 글로벌 초고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도 공격적으로 수주하고 있다.

3. Eaton

북미 전력기기 시장의 전통적 강호로, 미군 연방 기지 및 핵심 관공서 인프라에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브랜드 중 하나다. 현재 LS일렉트릭이 북미 현지화 전략(텍사스 생산 거점 등)을 통해 배전반 및 전력기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만큼, 북미 안방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파이를 뺏어와야 하는 핵심 타겟이다.

| Schneider Electric



| Siemens

The image shows the SIEMENS logo in a bold, teal, sans-serif font.

03 투자포인트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1)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클러스터 직격 수혜

AI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은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팹의 전력 수요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이미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시장에서 점유율 70%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 중입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을 받아 내부 서버로 안전하게 분배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당사는 초고압 변압기부터 중저압 배전반, DC 배전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전력 인프라 전반을 '원스톱 토탈 패키지(Turn-key)'로 공급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실제 대규모 수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3일 북미 빅테크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향 1,703억 원 규모의 수배전반 및 배전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4월 6일에는 북미 AI 데이터센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에서 1,066억 원 규모의 345kV 초고압 변압기를 수주했습니다. 또한 4월 29일 블룸에너지(Bloom Energy) 뉴멕시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3,190억 원 규모의 배전 솔루션 공급 계약을 따내며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LS일렉트릭 수주잔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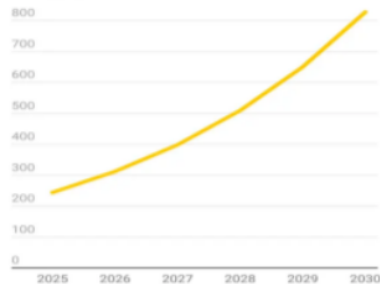
일렉트릭, 총 수주잔고 변화 (단위: 원)



AI 시장 성장률

AI Market Size 2025-2030

Market Size (billions \$)



Created with Dataswrapper

03 투자포인트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2) 북미 시장 본격 성장 및 현지화 전략 성공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 수혜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LS일렉트릭의 북미 사업은 구조적인 급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북미 전력 시장은 변압기 주문 후 인도까지 걸리는 리드타임이 수년 이상으로 늘어난 극심한 공급 부족(Shortage) 상태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공급자 우위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타와 텍사스 생산기지를 선제적으로 확대하며 현지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량(Q)을 늘리는 것을 넘어, 판가(P) 상승 흐름을 온전히 실적에 반영하여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치트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의 성공은 숫자로도 증명되어, 2026년 1분기 북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 폭증한 약 3,0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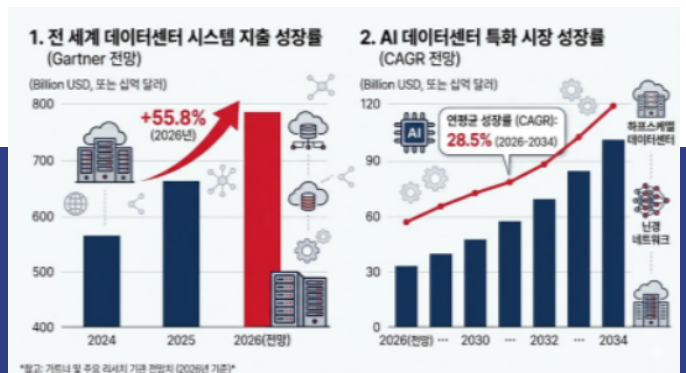
3) 사상 최대 수주 잔고와 고성장 실적 가시화

전방 시장의 강력한 전력 수요는 LS일렉트릭의 실적과 수주 잔고를 동시에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4% 증가한 1조 3,766억 원, 영업이익은 45% 증가한 1,266억 원을 기록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점은 실적의 '질적 개선'입니다. 1분기 말 기준 총 수주 잔고는 2025년 말 대비 6,000억 원 늘어난 5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데, 이 중 마진율이 월등히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압 변압기 잔고가 3조 1,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약 5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전년 대비 83% 급증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고마진 제품 위주의 믹스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2~3년간 영업이익률(OPM)의 가파른 레버리지 효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LS일렉트릭 수주잔고 변화



AI 데이터센터 지출 성장률



03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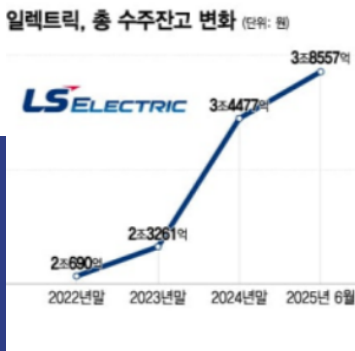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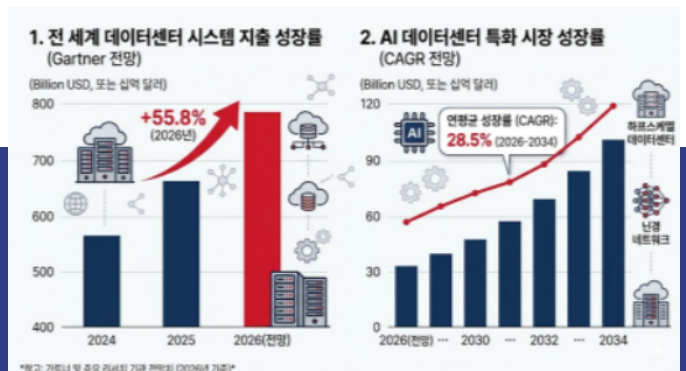
4) DC/ESS/HVDC 등 차세대 기술 리더십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를 증설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는 탄소 중립(RE100) 달성과 막대한 전력 소모에 따른 효율성 및 발열 문제입니다. LS일렉트릭은 이러한 시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차세대 전력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내부 서버는 직류(DC) 전력을 사용하는 반면 기존 전력망은 교류(AC) 방식이기 때문에 변환 과정에서 대규모 전력 손실과 발열이 발생합니다. 동사의 고효율 DC 배전 솔루션은 이 손실을 최소화하여 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더불어 향후 데이터센터의 핵심 독립 전원으로 각광받는 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및 신재생에너지를 ESS(에너지저장장치)와 연계해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종합 인프라 역량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북미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 수주에서 보듯, 동사는 메인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고도 청정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미래 분산형 전력 시장까지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수주잔고 변화



AI 데이터센터 지출 성장률



04 리스크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1) 원자재(Copper) 가격 변동 및 원가 구조 리스크

LS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사업부문에서 구리(Electrolytic Copper)는 원가 비중의 약 15~2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재료입니다.

구체적 리스크: LME(런던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이 톤당 \$10,000를 상회할 경우 영업이익률이 직접적으로 타격받습니다.

수치 기반 영향도: 과거 데이터 기준, 구리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전력기기 부문의 매출원가율은 약 1.5~2%p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대응: 수주 계약 시 원자재 가격 변동을 판가에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조항을 확대하고 있으나, 민수용(유통)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판가 전가가 어려워 단기 수익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주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현금 흐름(Cash Flow)" 리스크

과거 단품 위주의 현금 결제 방식에서 조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EPC 및 시스템) 수주로 사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재무적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구체적 리스크: "매출 채권" 및 "미청구 공사" 대금의 증가입니다. 외형(매출)은 성장하나 영업활동현금흐름(OCF)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흑자 도산형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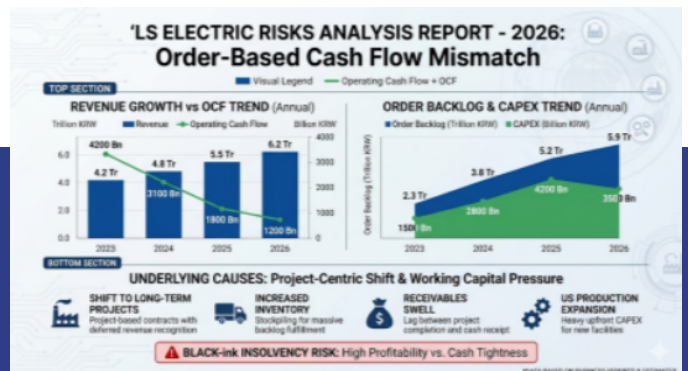
수치 기반 현황: 2025년 말 수주 잔고: 약 5.2조 원 (사상 최대)

운전자본 부담: 수주 증가로 인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전년 대비 약 15~20% 증가하며 가용 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최근 구리 가격 동향



수주 기반 현금 흐름 미스매치 및 CAPEX 추세



04 리스크

LS일렉트릭

"글로벌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로서, 초고압 변압기 캐파(CAPA)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중장기적 외형 성장을 확보한 모멘텀 기업"

3) 북미 시장 편중 및 지정학적 리스크

현재 LS일렉트릭의 성장은 북미(USA) 전력망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회인 동시에 강력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구체적 리스크: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축소 및 관세 장벽 강화입니다. 현재 한국산 변압기 및 배전반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 시 수익성에 치명적입니다.

수치 기반 분석: 해외 매출 비중: 2023년 약 36% → 2025년 약 50% 육박 (북미 비중 급증)

관세 영향: 만약 10%의 보편적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재 10% 중반대의 북미 영업이익률은 단숨에 한 자릿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설비투자(CAPEX)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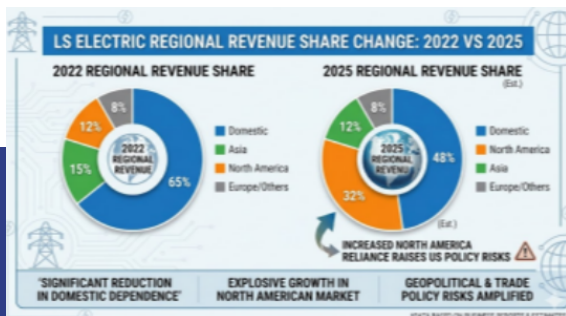
글로벌 수요 대응을 위해 부산, 청주 공장 및 미국 현지 공장 증설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리스크: 고금리 기조 유지 상황에서 외부 조달 비용(이자 비용) 증가 및 신규 설비 가동 초기 단계에서의 고정비 부담 (감가상각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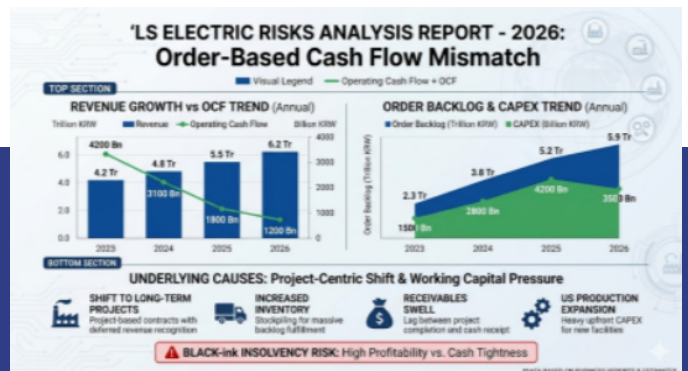
수치 기반 데이터: 2024~2026 예상 총 CAPEX: 약 8,000억~1조 원 규모 추산.

이로 인해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현재 약 100% 내외 유지 노력 중)할 수 있으며, 신규 공장의 수율 확보가 늦어질 경우 영업이익 하향 압박이 발생합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 변화 (2022 vs 2025)



수주 기반 현금 흐름 미스매치 및 CAPEX 추세





(주)LS일렉트릭

불패전사 한사위
한사WITH 1조

39기 방성민

40기 신종민 40기 이재준 40기 임소은

